

老年病환자에 대한 辨象心理護理를 論함

吳今子*·玄紅梅**

지금 사회적으로 老年人口比例가 增加됨에 따라서 老年病患者가 相應하게 增加되어 老年病醫學과 老年病護理는 醫學領域에서 자못 重要的 課題로 提示되고 있다. 지금 中國에 老年人口가 일억일천만이 되는데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筆者는 回象醫學차원에서 老年病辨象心理護理에 대하여 談論하려 한다.

老年期心理特徵

65세 이상의 老年期는 人生의 보귀한 黃昏時期이다. 老年期에 들어서면 生理上에서 老化現象이 나타나며 生理上에서도 큰 變化가 생기게 된다. 때문에 感覺氣管이 老衰해지고 感受性이 普遍的으로 저하되어 耳聾, 眼花가 생기며 食欲減退 혹은 食欲鮮美가 減退되고 觀察力이 敏感하지 못하고 記憶力이 減退되거나 動作反應이 遲鈍하게 된다. 그리고 感知能力 反映能力이 저하되면서 興趣와 情緒에 쉽게 波動이 나타나면서 健康치 못한 心理活動을 自我意識하지 못하거나 自我控制能力이 弱화된다. 또한 사회상에

서 격리·배척·기시감을 의식하면서 고독·비애·自悲 心理에 빠지기 일수다.

各象老年病人的 心理活動과 辨象心理護理

四象醫學에서 病人에 대한 心理治療는 藥物治療보다도 점차 進行되고 있으며 또한 一貫적인 것이며 담당 醫師들이 반드시 해야 하지만 또한 간호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言行으로 心理護理도 醫師들의 치료와 배합하여 進行한다면 예상외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해야 하겠다.

四象醫學에서 心理護理는 天稟臟理 및 情志(喜怒哀樂)의 順動과 逆動의 生理原理에 그 理論依據를 두고 進行하는 辨象心理護理이다. 心理因素는 疾病의 發生, 發展과 結局에 대하여 아주 密接히 聯系되어 있는데 心理作用은 疾病을 發生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健康的 심리, 명량하고 낙관적인 성격, 유쾌한 情感은 능히 老衰過程을 늦출 수 있고 오래동안 소극 정서의 강렬한 정신자극, 끊임없는 우울과 번뇌, 비애는 대뇌의 公능

* 中國延邊民族醫藥研究所

** 黑龍江省五常縣人民院

紊亂을 초래하며 인체생리 장애, 생리상의 退行性變化를 촉진하고 老年期에 心身질병을 가속화시킨다.

各象에 따라서 性情이 각기 不同하기 때문에 各象에 屬한 사람들의 心理護理는 不同해야 한다. 즉 辨象護理를 해야 한다.

94年度에 우리 병동에 입원한 老年病人은 모두 87名, 입원총수의 32.5%를 차지하였다. 其中 太陰人은 39例, 少陽人은 15例, 少陰人은 33例, 太陽人은 보지 못했음. 不同한 象환자들이 각기 不同한 心理특점이 있었다.

太陰人 老人: 性格이 內行적이었고 고집이 세고 자기 感情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고 일단 感情이 動하면 오래 지속된다. 太陰人 老年病人은 愉快하지 못한 정서 자극을 받으면 인차 不良한 이 動하면 오래 지속된다. 太陰人 老年病人은 愉快하지 못한 정서 자극을 받으면 인차 不良한 心境을 形成하는데 心境이 좋지 못하면 모든 것이 눈에 거슬려 보이고 무엇을 듣거나 무엇을 보거나 모두 화를 낸다.

太陰人 老年病人들은 自己病에 대하여 疑心이 많고 一知半解한 知識으로 측량하며 自己病을 너무 嚴重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안위와 설복하는 言行도 모두 半信半疑하면서 다른 사람의 뜻을 曲解하기도 하면서 醫師들의 論斷도 藥物의 眞假도 간호원이 注射를 놓는것도 모두 疑心하게된다. 이러한 病人들은 醫護人員들의 精神暗示도 잘듣지 않고 잘 배합하지 않는다. 「東醫壽世保元」에서 李濟馬先生은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寧靜則居文安……若怯心至於怕心, 則大病作怔忡也, 怔忡者, 太陰人重證也」라고 하였다. 때문에 간호원은 太陰人의 心理를 잘 장악한 후 病人을 幫助하여 疾病을 戰勝할 수 있다는 信心을 세워줘야 한다. 여기에서 관건은 간호원이 환자의 절대적 信任感을 얻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간호원은 환자의 疑慮를 了解하고 解除해 주며 엄숙한 태도로 또한 대범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병자의 似

懼非懼한 醫學知識에 대하여 내심하게 깨우쳐 주어야 하며 쓸데없는 우려를 해제시켜야 한다.

少陰人 老人: 內行的 성격으로서 性情이 偏狹하고 思慮가 많다. 질병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게 되니 被動依瀨性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돌봐주기를 바라면서 행동이 皮동적이고 절대 順從하며 情感이 취약해지고 어린애와 같은 색채를 띄게 된다. 자기 병에 대하여 우려가 많아 화환을 하게 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면 경황실색하고 온종일 不安해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悲觀情緒에 빠지게 된다. 李濟馬先生은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 則脾氣也活也」라고 말씀하셨다. 간호원은 마땅히 病의 發病 透因, 가정환경, 사회인원 關係를 全面的으로 了解한 다음 여러 方面으로 관심을 돌리며 부드러운 말로 병을 해석하며 정서를 調解시켜야 한다. 李濟馬先生은 「少陰人 進一步而恒寧靜不安之心, 如此則必無不壽」라고 하였다.

少陽人 老人은 性格이 外向性이고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성질이 조급하고 성을 잘 낸다. 李濟馬先生은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則居不安……若懼心至於恐則大病作而健忘也, 健忘者 少陽人病之險證也」라고 하였다. 少陽人 老人들은 原來 敏感한 自尊心이 있는데 일단 병에 걸려 입원하게 되면 自我價值感이 한풀 꺾이게 되고 자존심도 自然히 損傷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외계 사물에 민감해지며 自己 損傷된 自尊心을 미봉하고 수호하는 반발적인 병태적 내심활동이 산생되는데 이는 「懼心」에서 오는 것이다. 간호원은 반드시 환자에 대하여 각 方面으로 돌봐주며 그의 自尊, 自強,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지지하고 以柔對解하고 順伯從欲하는 방법으로 病人의 情緒, 意志를 만족주어 질병을 이겨나가게 해야 한다. 李濟馬先生은 「少陽人 恒察於內而恒寧靜懼心, 如此則必無不壽」라고 하였다.

結 語

四象醫辨象護理는 李濟馬先生이 著書「東醫壽世保元」에 기초하여 形成된 새로운 護理學이다. 辨象만 正確히 判定하면 心理를 장악하는데 捷徑이 될 수

있으니 환자들에 대한 心理護理에 아주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筆者는 이렇게 저희 淺短한 見解를 發表하니 여러 先輩, 先生 人士들께서 많이 指導 해주시기 바랍니다.